

NAKS 학술대회 성료… 차기대회는 콜로라도 덴버

포토뉴스 / 월드코리안 뉴스

2015.07.21. 17:30

조규형 동포재단 이사장, 김기환 뉴욕총영사 등 600 여명 참석



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'이란 주제로 제 33 회 NAKS(총회장 최미영) 학술대회가 7 월 16 일부터 18 일까지 사흘간 뉴저지 티벡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됐다.[사진제공=재미한국학교협의회]

제 33 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(NAKS, 총회장 최미영)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7 월 16 일부터 18 일까지 미국 뉴저지 티벡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됐다.

NAKS 에 따르면, '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'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, 김기환 뉴욕총영사, 정종철 워싱턴 교육관 등 내외 인사와 NAKS 산하 14 개 지역협의회 교사, 초청강사, 자원봉사자 등 600 여명이 참석했다.

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△한국 역사문화 특강 △SAT 한국어 특강 △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△협의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이 진행됐다. 대회 마지막 날인 18 일에는 재외동포 재단의 '스터디코리아 콘텐츠' 안내, 박기태 반크 단장의 특강 등이 마련됐다고 NAKS 는 전했다.

NAKS 와 김구재단이 공동주최한 제 5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, 제 2 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시상식에서는 13 명의 학생과 5 명의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

이번 학술대회는 재외동포재단, 교육부, 외교부, 국립국어원, 국립국제교육원, 청주시, 경상북도, 동북아역사재단, 주미한국대사관, 문화체육관광부, 김구재단,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후원했다. 2016 년 제 34 회 NAKS 학술대회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릴 예정이다.

[출처: 2015_07_21 월드코리안 신문]